

분단이후 북한의 우리말 종합정리

金敏洙 엮음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전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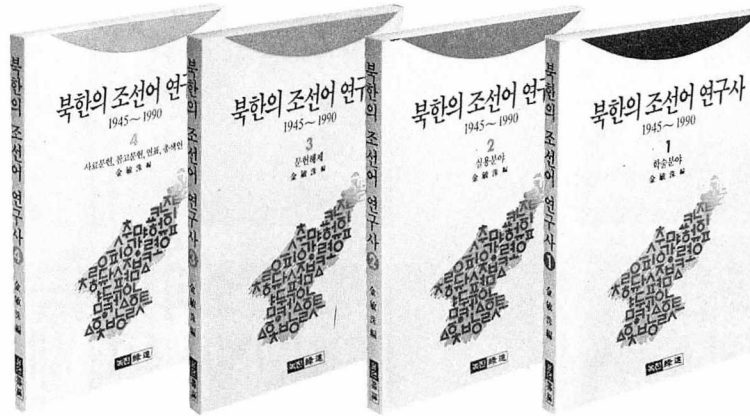
남과 북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보루로 남아 있다.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 이상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겠기 때문이다. 최근 金敏洙 교수(고려대 국문과 명예교수, 65)가 엮어낸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전4권, 녹진)는 갈라진 언어 45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짚어냄으로써 동질한 언어에 애정의 다리를 놓아준 진지한 학술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연구서다.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있는 26명의 제자와 함께 3년여 동안 해방 이후부터 90년까지의 북한언어를 다각도로 분석한 이 책은 분단 이후 45년만에 북한의 우리말 연구를 집대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루지 못한 종합적 저술이라는 평가를 받아 반쪽자리 현대국어학사를 온전히 메운다는 큰 의의를 지닌다.

‘철자개혁’ 전환점으로 4시기 구분

전체 4권은 해방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연구된 공식적·통시적 연구업적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학술분야(1권)와 언어정책에 의해 시행된 표기·철자법 등 실용분야(2권), 북한에서 발행된 언어관련도서를 소개한 문헌해제(3권), 그리고 이제까지 북한의 국어연구 업적을 총망라한 사료문헌(4권)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각권은 북한의 국어연구 45년간 동향을 선명히 파악하기 위해 시대구분에 의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하는데, 김민수교수는 그 시기를 대체로 북한 언어정책상 세번 있었던 ‘철자개혁’을 전환점으로 해서 4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통일안」 시대(1945~54)로 조선어학회에서 작성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남북공통으로 시행됨으로써 언어연구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특징을 보인다. 「철자법」시대(1954~66)로 분류된 제2기에 북한은 휴전후 경제계획 등으로 사회토대를 다지면서 「조선어철자법」(1954.9)을 제정, 독자적인 ‘철자개혁’으로 남북의 언어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 특히 이 시기엔 신진학자의 진출로 국어사, 방언학 등 실용적이고 이념성 짙은 저술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선말규범집」(1966.7)의 철자개혁이 다시 한번 이뤄지는 제3기 「규범집」시대(1966~87)에는 평양말을 토대로 한 표준어와 국어순화 정책 등 남북언어 격차가 크게 벌어진 시기로 분류된다. 모든 사전이나 문법이 ‘문화어’ 확립을 위해 연구됐고 방언학·어휘론·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는 갈라진 언어 45년간의 행적을 구명, 동질한 언어의 애정을 확인한 학술작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깊다. 이 책은 해방후 이뤄진 북한의 언어연구를 네시기로 나눠 학술 및 실용분야를 고찰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언어관련 사료문헌을 총망라, 통일을 앞둔 우리말연구의 디딤돌로 자리하고 있다.

문체론 등 다양한 분야가 이론실천적 방법으로 저술됐다. 국제흐름과 무관할 수 없었던 제4기 새규범시대(1987~)에 들어서면 이전의 혁명적 방법의 연구방향이 전면 재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선말규범집」신판(1988.2)으로 남북의 벌어진 격차가 다시 좁아짐을 알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음성학이나 음절, 어휘의 수리적 연구, 문장론·계산언어학·지리언어학 등 새로운 분야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에 따라 1권 ‘학술분야’편에서는 음운론·어휘론·품사론·형태론·문장론·문체론·방언연구·향가연구·이두연구·국어사·국어학사 등 북한의 연구동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표현수단, 기능문제 등 언어학적 관점에 치우친 북한의 경향을 분석한 「북한의 문체론사」(조일형)나 역사비교 방법론에 의한 방언연구를 강조함으로써 ‘문화어와의 대비’를 드러낸 「북한의 방언연구사」(박영준)의 논문은 남한과의 학문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향가의 실체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언어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는가를 밝힌 「향가연구사」(김무림), 훈민정음 창제 이전 문자생활을 살린 「이두연구사」(강영) 등은 우리민족의 오랜 언어감각과 의식발달을 북한이 어떤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흥미를 끈다.

목적지향성 지닌 언어정책 뒷받침

이러한 언어학술적 연구는 모두 뚜렷한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북한 언어정책의 학문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실생활에 이용됨으로써 가치가 발휘될 수 있는데 2권 ‘실용분야’편에서 그 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다. 북한에서 시행된 언어정책·국어순화, 언어규범이 된 표준어, 외래어·철자법·띄어쓰기·문장부호·로마자표기를 포함해서 문자개혁·사전편찬·국어교육·한글교육·한자교육·화법·경어법 등을 역시 4시기별로 나눠 고찰하고 있다. 개론적인 「북한의 언어정책」(이상혁)에서 그 시기별 특징을 짚어내는데, 초기의 항일무장투쟁을 경험한 민족어교육 중심의 언어정책은 60년대의 철자법 중심의 규범화정책과 7,80년대 문화어운동을 거쳐 실용적 목적적인 언어정책으로 변화했음을 보인다.

북한의 언어정책 가운데 가장 특징적이며 정책적으로도 중시되었던 국어순화는 결과적으로 남한언어와의 이질성을 초래하기도 했다. 「국어순화사」(이윤표)에서 그 과정을 살피고 있다. 남북언어의 이질성은 특히 외래어 부문에서 현저한데, 북한이 노어의 영향으로 경음화현상이 습관화한 데 비해 남한 역시 영어영향권에 놓인 외래어 범람의 문제점이 「외래어사」(권미정)에서 비교고찰, 통일을 앞두고 남북언어학자들이 함께 논의할 부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언어연구는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임의로 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계획서에 의해 과학적 객관주의 연구방법론으로 진행된다. 3권에 추려진 북한에서 발행된 언어관련도서 100여종은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표지와 본문1면의 자료사진과 함께 간략한 해설과 평가를 실어 북한언어의 자료에 대한 궁금증을 대략 해소시키고 있다.

최근에 연구되어 선보이기 시작한 응용언어학중 계산기언어학을 서술한 「계산기언어학개론」(1990)이나 방언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지리언어학적 연구체계를 심화시킨 「조선언어지리학사고」(김병제, 1988) 등은 북한의 새로운 분야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공백기에 있던 차차표기법에 대한 최초의 본격연구서로 주목할 만한 홍기문의 「리두연구」(1957)나 북한의 국어사전 편찬 열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정순기·리기원의 「사전편찬리론 연구」(1984), 그리고 대중의 언어생활에서 민족특성을 가장 잘 체현하는 것이 입말체라고 강조한 강상호의 「조선어입말체연구」(1989) 등은 통일을 대비해 우리학계가 우선적으로 주목할 저서로 평가돼 있다.

해방후 45년간 북한에서 이뤄진 국어연구의 업적을 총망라한 논저목록과 북한의 국어학사를 일목요연하게 연도별로 정리한 국어사연표를 실은 4권도 북한의 언어연구에 관심있는 이에게 가치가 높은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그간 북한의 우리말연구에 관한 관심은 자료이용의 한계라는 상황적 조건에 의해 그다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나 김민수교수에 의해 「北韓의 國語研究」(고려대출판부)가 증보판으로 계속 발간된 데 이어 80년대 후반에는 「북한교육발달사」(김형찬 지음, 한백사) 「북한의 말과 글」(고영근 외 지음, 을유문화사) 「북한의 어학혁명」(김영아 외 지음, 白衣) 「남북한 언어비교」(전수태·전호철 지음, 녹진) 「북한의 국어국문학연구」(국어국문학회 편, 지식산업사) 「북한의 언어생활」(남성우·정재영 지음, 고려원) 「북한의 조선어학」(자하어문학회, 한신문화사) 등 다수의 저술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김지원 기자